



2018년 4월 15일(제871호) 부활 제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지육림(酒池肉林)

주지육림(酒池肉林).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큰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남는 건 별문제가 안 되는 우리나라 회식 문화에서는 ‘주지육림’이란 말만큼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주지육림을 꼽자면, 삼겹살에 소주, 회에 소주, 치킨에 맥주입니다. 사이좋게 육해공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두고 단언컨대, 저녁 메뉴가 위의 세 가지 중 하나였을 때 모자랐던 적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랬습니다. 맛있어서 멈추지 못합니다. 음식은 금방 떨어지니 추가로 더 시킵니다. 식사자리가 끝날 즈음이면, 약속이나 한 듯이 꼭 몇 조각 남습니다. 그런데 그리 맛있는 걸 남길 정도라면, 주지육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먹는 즐거움까지 만끽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건 큰 기쁨을 줍니다.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죽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연옥 영혼을 위해서 식사가 끝날 때마다 기도할까요. 말 나온 김에, 연옥 영혼은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강제 다이어트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먹을 걸 찾으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왜 찾으셨을까요? 부활하고 나니 배가 고프셔서? 아니면 부활한 김에 먹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려고? 아닙니다. 부활한 척하시는 게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활에는 육신이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서 ‘먹는’ 행위를 부활의 마지막 증거로 제시하셨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먹는’ 행위는 우리가 영과 육으로 온전히 살아있음을 말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길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두 번의 단식과 재계(齋戒)의 시기인 사순 시기가 끝나, 죄책감 없이(?) 주지육림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무절제한 모습만 아니라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주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더 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적인 양식까지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전에서 열리는 영적인 주지육림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모신 성체는 연옥영혼들이 그토록 원하는 맛있는 음식(천상 양식)입니다.



임재혁(스티프노) 신부
백골(육군 제3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사도 3,13-15,17-19

회 답 송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제 2 특 시

1요한 2,1-5ㄱ

복음 본보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루카 24,35-48

영 성 제 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진리를 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의 전통에 매달리는 “전통주의자”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에 따라 개혁된 전례서들 안에도 개혁주의자와 전통주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타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앞서 소개한 두 문헌의 선언 내용을 살펴보고야 할 것입니다.

중세 이래의 전통은 예수님의 현존인 성체가 모셔진 곳이라 해서 감실을 특별한 자리에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앞에서 말한 바대로 감실은 제대를 밀어내고 성당의 중심 자리인 양 인식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조가 대부분의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시하여 신자들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이때, 위의 교도권의 가르침은 대단히 용기 있는 선언이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성당 안이 아니라 따로 경당을 만들어 거기에 감실을 설치하라고 권고합니다. 파스카 신비의 장소인 제대는 감정보다는 이성애 호소하는데 반해 감실은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감상적 정서에 호소하므로 신자들의 시선을 더 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당 안에 감실이 있을 때 신자들의 마음은 제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공간 확보가 어렵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경당을 마련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성당 안의 뛰어난 자리에 모시라고 교도권은 말하고 있습

제대와 감실의 관계

니다. “뛰어난 자리”가 성당의 중앙 위치, 즉 제대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제대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체를 모실 경당을 따로 마련하라고 요청하던 교도권이, 제대의 위치를 위협(?)할만 한 중요한 자리에 감실을 배치하도록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뛰어난 자리”란 성당의 제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성체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용하면서 기도 분위기를 둘 수 있는 자리, 성당의 한 모퉁이 자리와 같은 곳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문헌에서 소성당 또는 경당의 제대 위에 성체를 모시라는 권고는 중세 이래 내려온 관습을 인정한 것으로서 전통주의자들과의 타협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4대(大) 성당(성 베드로, 성 바오로, 라테란, 성모 대성당)을 위시한 대부분의 고·중세 전통적 양식의 성당에 들어가 보면 제대 외에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빨간 감실등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성당 측면 한쪽에 작은 경당을 만들어 거기에 성체를 모신 감실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마 옛 성당들의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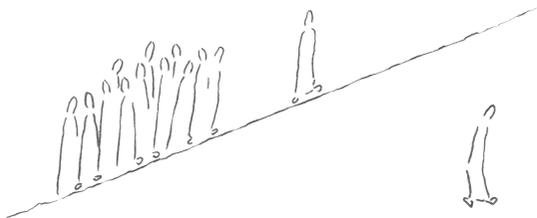
넘어오지 마시오

이 선 너머로는
오지 마시오.

설령
당신이 예수고
뒤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사도들이라 하여도
상관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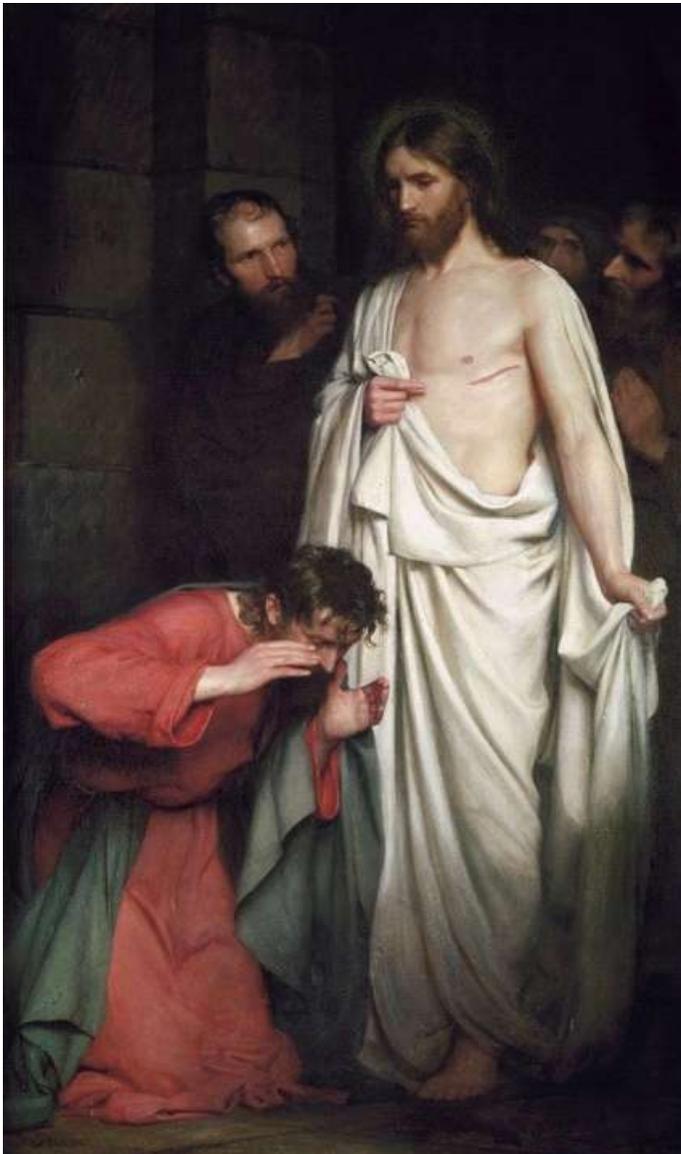
그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우린 또 이렇게
나의 세상에서
살지요.



상화이야기

의심하는 토마스



예수님의 몸은 밝게 빛나고 있으며,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은 두려움과 경외감, 놀라움에 가득 찬 표정과 눈빛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토마스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듯(마치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듯하다) 놀라워하고 있다. 예수님의 표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분의 생각을 알기 힘들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 실망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자애로운 표정이신지? 이 그림 속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닐까?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그분의 상처와 손가락에 손을 넣어 보지 않아도, 돌처럼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본다.

칼 블로흐(1834-1890)
캔버스 위 유화 60 X 180 cm
소장지 미상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3주일: 명월 양재모 신부

◆ 교구장 동정

- 상송대(육군 7군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15일(주일)

◆ 군중교구 교육국 직원 모집

자격 : 대졸 이상, 운전 가능자
인원 : 1명
접수 : 4월 20일(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군 복음회, 반침착은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